

한반도를 품은 '느리지' 발걸음 절로 느려지네



석관정

영산강 '느리지'

물길이 굽이쳐 그려놓은 한반도

산 중턱마다 보석처럼 박힌 누정

고즈넉한 풍광에 어느새 시름 훌훌~



지난 18일 나주평야를 적시는 영산강을 보러 떠나던 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잔뜩 찜뚱뚱던 먹구름은 근심을 풀듯 굵은 빗방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호남의 젓줄'로 불리는 영산강의 발원지는 담양군 용면 응추봉이라 한다. 이곳 기슭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비듯 물줄기는 가마골 용소를 시작으로 제모습을 갖춘 후 장성, 나주, 무안평야를 적시며 목포 하구언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나주평야를 지난 때쯤이면 강폭이 넓어지며 유속도 느릿느릿하다. 협곡을 울음탕탕 달리는 강이 아니라 유장(悠長)한 흐름을 보인다. 이름마저 나주 영산창(현 영산포)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호남의 젓줄' 영산강=강물은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와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사이를 지나며 몸을 뒤흔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강물은 S자 형국이다. 목젓처럼 튀어나온 두 개의 지형이 손을 맞잡듯 태극모양을 이뤘다. 강물에 오메가 모양으로 둘러싸인 물돌이 땅 모양은 영락없이 한반도를 빼닮았다. 더욱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됐다 하니 이채롭기만 하다.

이곳은 '느리지'라고 불린다. 영산강 물길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여 길게 늘어진 모양을 표현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윤여정 나주시 전략사업과장이 지난 2009년 펴낸 '대한민국 행정지명'에 따르면 늘어진 곳→늘오지→늘어지→느리지 순으로 변했다.

또한 강 건너 무안군 몽탄(夢灘) 역시 '큰 여울'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큰여울→굼(옛말로 크다)여울→굼여울로 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몽탄은 후삼국시대 견훤에게 쫓기다가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강을 무사히 건너 위기를 모면한 고려태조 왕건의 얘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6월 영산강 한반도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동강면 옥정리에 위치한 비룡산 정상에 '느리지 전망대'를 설치했다. 4층 구조의 철골 구조인 전망대(높이 15m)는 건축면적 51㎡(15평) 규모로 국비 4억여원이 소요됐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S자형으로 돌아가는 웅장한 영산강의 진면목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이곳은 4대강 사업 완료 후 영산강 8경(景)중 제2경으로 선정됐다. 담양 용소와 승촌보~목포 하구언을 연결하는 영산강 종주 자전거길과 맞닿아있다.

장맛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힘겹게 전망대 밑에 다다른 한 라이더가 자전거를 세워둔 채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인증센터에 들려 수첩에 스탬프를 찍은 후 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길 인증 스탬프에는 느리지를 뜻하는 '4 Rivers NEUREOJI'라는 문구와 물돌이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영산강유역에 누정 395개 현존=영산강은 문화를 실어 나른 길이었다. 영산강 뱃길은 목포 하구둑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년 동안 남도의 젓줄 역할을 해왔다. 강변에는 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배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포구와 나루가 있었다. 천동나루, 북바우 나루, 이내 나루, 석관정 나루, 노항포, 제창포, 구진포 등 이제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다.

느리지 전망대에서 내려와 석관정으로 차머리를 향했다. 석관정, 영모정, 금강정 등 빼어난 절경마다 세워진 누정(樓亭)은 영산강의 보석같은 존재이다. 나주시지(市誌)에는 "영산강 유역에 누정이 현존 395개, 현존하지 않는 누정 528개소 등 모두 923개소가 있었다"고 적혀있다.

이 가운데 나주는 296개소로 함평(146개소), 영암(124개소), 화순(121개소), 담양(61개소)에 비해 많다. 이에 대해 전남대 호남문화 연구소는 "영산강 분류가 관통하는 나주목

과 지석천이 감고 도는 남평현, 만봉천 등 강줄기를 따라 고을이 형성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인문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강변 바위아래에 자리한 석관정(石串亭)은 많은 영산강 누정 가운데 으뜸이다. 석관은 강 쪽으로 바위가 푹 튀어나와 이불붙여진 '돌꽃'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정자에는 '나주 제일정(第一亭)'과 '영산강 제일경(第一景)' 현판이 당당하게 걸려있다.

정자에 앉아 바라보는 강 풍경은 느리지와 다른 인상이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풍경 속에 앉아있노라니 왜 이다지도 여유없이 바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왜가리 한 마리가 느린 날개짓을 하며 강물 위를 비껴 날아간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가는 길

광주에서 느리지 전망대로 가려면 국도 1호선을 따라 학교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동강교를 건너 후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후 동탄대교 방향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로 향한다. 광주에서 70여km 떨어져 있다. 전망대 오르는 길은 옥정리 마을을 지나 비룡사 방향으로 오르는 코스와 49번 지방도 대전3구 마을버스 정거장에서 우회전해 철산마을 경로당~척고제 제방을 지나 오르는 2개 코스가 있다. 철산마을 경로당에서 전망대까지는 1.3km 거리.

석관정(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11)은 1번 국도 다시초교 부근에서 좌회전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나주 '느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영산강 물돌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고품격 웨딩의 메카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Cool Wedding

그 누구보다 특별한 당신, 영원히 기억될 웨딩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할인
7~8월 웨딩 확정시 | 뷔페 ₩ 33,000 ~
스테이크 ₩ 38,500 ~

"단 한번의 웨딩은 평생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신양 헤니문 카드 특전 -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일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시 40% DC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